통일신라와 나말려초기 지옥관념의 전개*

나 희 라**

≪目　次≫

1. 머리말
2. 지옥관념의 의미와 유포
3. 통일신라시대 지옥관념의 유포
4. 나말려초기 지옥관념의 전개
5. 맺음말

1. 머리말

因果業報와 輪廻思想을 특징으로 하는 불교의 생사관은 한반도 일대의 거주민들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쳤다. 그것은 현세의 불확실성을 내세에서 만회하고자 하는 인간의 보편적 욕구를 인간 행위의 윤리성을 매개로 설명하고 충족시켜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불교에서 인과업보나 윤회설을 설명하는데 가장 효력을 발휘했던 것이 지옥과 극락 관념이었다.

그런데 극락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라면 지옥은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각적이고 현실적이어서, 추상적 사고에 익숙하지 않은 대중들의 일상적 생활원리로 적용되기가 더 쉬었다. 극락관념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를 제시하지만, 지옥관은 '어떻게 하지 않으면 된다' 정도를 제시한다. 불평등한 중세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적극적 수단을 많이 가지지 못했던 일반민들에게 그런 것을 내세우지 않는 '지옥에 빠지지 않는, 즉 불행해지지 않을 수 있는 삶의 원리'를 제시하는 지옥관념은 훨씬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불교가 일반 대중의 삶의 철학에 파고드는 데에는 지옥관념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지옥관념은 단순히 상상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현실 사회를 함축하고 있다. 지옥에 대한 상상이나 묘사는 역사적 배경을 깔고 전개되었다.[1] 따라서 한 사회의 지

* "이 논문은 2006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6-321-A00173)."

** 진주산업대학교 교양학부 전임강사

1) 인간의 행위를 심판하는 것은 지옥관념의 핵심인데, 이러한 관념의 구체화는 일반적으로 현실의 정치조직이나 그것의 제도화와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 유희수, 1995 「(書評)권력의 내깃거리로서의 중

옥관념과 그 표상을 살펴봄으로써 그것을 가능케 한 당대 사회의 역사적 배경을 추출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 지옥관념은 인과응보설을 바탕으로 善行과 惡行을 구분하고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즉 사회적 행위의 規準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개인적, 사회적 가치를 형성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가치를 실천하도록 이끈다. 그러므로 지옥관념의 역사를 추적하는 것은 일정 시대와 일정 사회를 살아낸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원리를 이해하는 한 방법일 수 있다. 또 선악 행위의 구분과 판단은 역사적이며 이데올로기적인 배경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를 추적하는 것도 흥미로운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논문에서는 불교의 수용 이후 불교의 지옥관념이 전개되면서 그것이 통일신라와 나말여초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하는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시기적으로는 한반도에 불교가 들어와 일반인들의 삶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초기 단계에 해당한다.

지옥 관념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려는 연구는 한국사 분야에서는 거의 다루어진 적이 없다. 종교학이나 국문학, 인류학, 민속학, 미술사 분야에서 내세관이나 타계관과 관련하여 다루어지거나, 미술사 분야에서 지옥도를 주제로 한 연구들이 나와 있을 뿐이다.[2] 그런데 여타 학문 분야에서 내세나 지옥을 다룬 연구들은 역사학의 입장에서 보면 역사적 맥락과 변화의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는 점이 있어서 역사학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3]

세말 지옥의 표상」『西洋史論』47, 한국서양사학회 ; Alice K. Turner(이찬수 옮김), 1998『지옥의 역사』Ⅰ, 동연 ; 于爲剛, 1988「中國地獄觀念的形成與演變」『社會科學戰線』1988年 4期 ; 朴永哲, 1997「中世中國における地獄と獄訟－唐代說話に見える法と正義－」『史林』80－4 참조.

2) 지옥과 관련하여 국내의 연구 성과들은 대략 다음과 같다. 金泰坤, 1966「黃泉巫歌의 思想性考」『民族文化硏究』제2호,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 노현석, 1985「佛敎의 地獄 考察」,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석이, 1988「고대소설에 나타난 지옥관에 관한 고찰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수, 1981「고전설화에 나타난 冥府說話考究」『한국문학연구』4, 동국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 장미진, 1995「불교문화권에 있어 '지옥'의 원신화적 요소와 그 의미」『미술사학』7 ; 朴永哲, 1997「나라카(Naraka)에서 地獄으로－불교의 번역과 중국문명－」『歷史敎育』63 ; 조흥윤, 1998「한국지옥 연구－巫의 저승」『民族과 文化』7, 漢陽大學校 民族學硏究所 ; 1999『샤머니즘연구』1, 한국샤머니즘학회, 재수록 ; 장춘석, 1999「目連說話 중의 冥界 新探」『東西文化交流硏究』2, 韓國敦煌學會 ; 장미진, 2000「조선시대 지옥도의 이코놀로기」『한국문화의 전통과 불교－蓮史洪潤植敎授停年退任紀念論叢－』, 논총간행위원회 ; 김영미, 2000「불교의 수용과 신라인의 죽음관의 변화」『韓國古代史硏究』20, 한국고대사학회 ; 박영철, 2000「출토자료를 통해 본 중세 중국의 사후세계와 죄의 관념」『동양사학연구』70 ; 이기선, 1992『지옥도』, 대원사 ; 韓國精神文化硏究院 편, 1993『朝鮮朝 佛畵의 硏究(2); 地獄系 佛畵』(安貴淑 ·金廷禧 · 柳麻理 共著), 城南 : 韓國精神文化硏究院 ; 김정희, 1996『조선시대 지장시왕도 연구』, 일지사.

3) 유럽이나 가까운 중국과 일본에서는 각 지역의 역사적 환경에서 죽음에 대한 관념과 태도의 문제를 살펴보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주요 참고 문헌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于爲剛, 앞의 논문 ; 道端良秀, 1960「中國佛敎に於ける地獄と恐怖」『印度學佛敎學硏究』8－5, 日本印度學佛敎學會 ; 坂本要 編, 1991『地獄の世界』, 東京 : 溪水社 ; S. G. F. Brandon, 1967 *The Judgement of the*

자료 선택에서는 일반인들의 생활이나 생각을 알려주는 것들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學僧들의 논설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이야기나 노래, 畵像, 의례들이 주로 그 대상이 되겠는데, 사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시기에는 이러한 자료들이 많지가 않다. 그래서 일반민의 입장을 알려주는 자료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경향성을 읽을 수 있는 자료라면 채택하여 사용을 할 것이다.

2. 지옥관념의 의미와 유포

지옥은 인간이 죽음 이후에 가는 곳의 하나로서 특히 생전에 악한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가는 곳이며 그곳에서 그들은 벌을 받는다. 따라서 지옥관념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인간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어떤 상태의 존재와 삶을 계속한다는 것, 즉 영혼에 대한 관념과 사후세계에 대한 관념이 있어야 하며, 행위의 선악에 대한 판별의식과 심판의 주재자에 대한 관념, 그리고 징벌에 대한 관념 등이 전제조건으로 요구된다.[4)]

원래 사후심판과 징벌은 현세 삶의 불완전함을 내세에서 만회하고자 하는 인간의 근원적 욕망에서 출발하였다. 현세 삶의 불완전함을 인식하고 이를 만회하려는 노력은 개인적인 측면의 의미도 있지만, 나아가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삶의 이상적 방식, 즉 가치나 정의, 규범 등을 인식하고 있으며 사회 내부적으로는 그것을 실천하려는 도덕적 전통이 존재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지옥관념이 내세우는 선행이나 악행의 근거들은 사회구성원들에게 사회행위의 준칙이 될 수 있었고 사후심판의 믿음은 사회질서와 그것을 유지하는 가치들에 대한 믿음을 유지시키는데 역할을 하였다.

그러므로 지옥관념은 흔히 사회적이며 정치적인 관념이라고 지적된다.[5)] 심판에는 심판을 내리는 주체가 있기 마련이고, 심판의 기준인 정의나 도덕, 가치는 사회질서와 권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옥관념은 종교사상과 신앙이 개인이나 사회 전체에 영향력을 발휘하였던 시대에 중요한 사회 통제의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지옥관념은 사후관념을 기반으로 한 것이

Dead – The Idea of Life After Death in the Major Religions, New York : Charles Scribner's sons ; Alice K. Turner(이찬수 옮김), 1998『지옥의 역사』1·2, 동연 ; Jacques Le Goff(최애리 옮김), 1995『연옥의 탄생』, 문학과지성사.

4) 澤田瑞穗는 어떤 종교의 명계설이 지옥을 완비하려면 ① 冥界의 主宰者와 官曹 ② 業報와 사후심판 ③ 牢獄과 刑罰의 세 요소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澤田瑞穗, 1990「地獄の經典」『地獄の世界』(坂本要 編), 東京 : 溪水社, 357면.

5) 道端良秀, 앞의 논문 참조.

기 때문에 대개 종교를 통해 형성되고 발전하였다. 그래서 교회가 지옥관념을 통해 사회통제의 수단을 획득하고 나아가 권력을 행사하는 일이 많았다.[6)]

지옥관념은 징벌의 무서움을 강조함으로서 공포를 조장하여 도덕적 이상이나 가치를 실천하도록 유도하거나 기존의 사회질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하였다. 불교에서는 不殺生을 윤리적 행위로 규정하는데 살생을 했을 경우 어떠한 지옥의 벌을 받는가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그림들이 그려져 그 가치를 생생하게 전달하였다. 당대의 화가인 吳道子가 그린 지옥그림을 보고 시장에 고기를 팔고 사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이다.[7)]

지옥은 확실히 겁을 주어 죄를 막는 억제책이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옥을 의심하는 사람조차 다른 사람들에게는, 특히 하층민들에게는 지옥이 쓸모 있는 것이라고 느꼈다.[8)] 그러나 상층의 지배층에게는 지옥이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 습관처럼 심판이나 징벌의 주체는 바로 자신들이라고 느꼈기 때문이었다.[9)]

이렇듯 지옥관념은 사회적인 차원에서 필요성이 부각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계층성을 지니는 측면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개개인의 윤리적 자각과 실천을 유도하는 것이었다. 어떤 것이 악행인가를 심판하고 악행을 하면 징벌을 당한다는 지옥관념의 부정적인 면은 사회통제의 수단으로 역할을 하였겠지만, 자발적으로 양심을 기른다든지 품행 개선을 한다든지 스스로 악행을 억제하려고 한다든지 하는 개개인의 도덕적 자각과 실천을 유도하는 측면은 지옥관념의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10)] 이런 점에서 지옥 관념은 개개인의 현세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게 해주었던 측면도 있었다. 또 지옥관념은 엄격한 자기반성과 참회를 가능케 한다.[11)] 인간은 자기반성과 참회를 통해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의 힘을 가지는데, 지옥관념이 여기에 적절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인도에서 지옥사상은 기원전 6~5세기경 우파니샤드사상의 등장과 더불어 발전하였고 불교에서도 인과응보와 윤회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지옥사상이 발전하였다.[12)] 地獄은 '地下의 牢獄'이라

6) 유희수, 앞의 논문 참조.

7) 叶廷珪(宋), 『海錄碎事』卷14 百工醫技部 圖畵門 "吳道子畵地獄變相, 都人懼罪, 兩市不集屠沽矣." 于爲剛, 앞의 논문, 102면에서 재인용

8) 3세기경의 기독교 신학자 오리게네스도 일반 민중들의 범죄를 막는 장치로서 지옥의 형벌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Alice K. Turner(이찬수 옮김), 앞의 책, 150~151면.

9) 유럽의 바로크시대에도 그러한 경향을 포착할 수 있다고 한다. 위의 책, 373~374면

10) 지옥관념에 비해 극락에 대한 생각은 윤리적이라기보다는 감각적이라는 지적은 이와 관련해 경청할 만하다. 定方晟(동봉 옮김), 1993 『불교의 우주관』, 관음출판사, 150면.

11) 지옥사상이 엄격한 자기반성의 사상임을 강조한 梅原猛은 지옥과 극락사상이 일본인에게 전한 것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① 인간의 고뇌를 보는 눈을 인간에게 줌 ② 인간에게 세속의 가치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줌 ③ 인간을 善으로 이끌고 惡을 그치게 함 ④ 인간을 죽음의 불안에서 구출함. 梅原猛, 1967 『地獄の思想』, 東京 : 中央公論社, 61면과 79면.

는 뜻으로 불교의 naraka(那落迦, 奈落)나 niraya(泥利耶, 泥梨)를 중국에서 意譯한 것인데, 인도에서 지옥사상이 등장한 후 나라카(또는 니리야)는 지하에 있는 어두운 곳이며 가혹한 형벌을 받으며 감옥과 같이 도망칠 수 없는 곳으로 묘사되었기 때문이다.[13]

불교의 지옥설을 자세하게 언급한 경전은 『鐵城泥犁經』과 『泥犁經』으로 번역된 『中阿含經』권12의 「五天使經」, 『增一阿含經』의 「善趣品」과 「八難品」, 『長阿含經』권제19에 해당하는 『世紀經』「地獄品」, 그리고 『正法念處經』, 『觀佛三昧海經』, 『地藏菩薩本願經』 등을 들 수 있다.[14] 중국에서 이러한 경전들이 번역되면서 불교의 지옥설이 유포되었다. 나아가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지옥관련 僞經이 편찬되기도 하였다. 불교가 동아시아에 전파되면서 인과응보설이나 윤회설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는데[15] 지옥관념이 그러한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였으므로 지옥설의 전파는 불교 弘布에서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중국에서는 『淨度三昧經』, 『佛說預修十王生七經』, 『血盆經』 등이 편찬되어 지옥관념을 전파시켰고, 지옥관념과 관련하여 성행하였던 目連說話와 目連戱의 근거 경전인 『佛說盂蘭盆經』도 중국에서 만들어진 위경으로 보고 있다.[16] 또 일본에서는 『佛說地藏菩薩發心因緣十王經』이 편찬되어 지옥관념을 전파하였다.[17]

이렇게 여러 경전에 지옥설이 소개되고는 있으나 보통 사람들이 이런 경전들을 직접 보면서 지옥관념을 이해한 것은 아니다. 경전은 특수한 학승이나 볼 수 있는 것으로 일반 승려도 경전

12) 인도에서의 지옥관념의 등장과 발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였다. 岩本裕, 1990 「地獄思想の展開-古代インドにおける地獄思想とその起源」 『地獄の世界』(板本要 編), 東京 : 溪水社 ; 奈良康明, 「死後の世界 - アヴァダーナ文學を中心として」, 위의 책 ; 定方晟, 「佛教の地獄の說」, 위의 책 ; 井本英一, 「閻魔-始原と終末の王」, 위의 책 ; 坂本要, 「地獄の系譜」, 위의 책 ; 장미진, 1995 앞의 논문.

13) 坂本要, 위의 논문, 708면 ; 장미진, 1995 위의 논문, 191~192면 ; 박영철, 1997 앞의 논문 참조. 물론 불교 경전에서 지옥이 지하에만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지는 않다(石田瑞麿, 1990 「地獄とは何か」 『地獄の世界』(板本要 編), 東京 : 溪水社 참조). 그러나 불교의 많은 경전에서 지옥은 지하의 어둡고 무서운 곳이라는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것이 불교의 지옥관념의 대강을 형성하였다. 종교사상적 측면에서는 至福의 공간은 'above'와 'light'와 관련이 있으며, 고통의 영역은 'below'와 'dark 또는 shadowy'와 연결된다(Linda M. Tober and F. Stanley Lusby, 1987 "Heaven and Hell" *The Encyclopedia of Religion* (M. Eliade ed.), 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p.237). 지옥의 구체적 공간이 반드시 '지하'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것의 이미지는 '하늘, 빛, 저 위 어딘가'하고는 다른 '어두운, 아래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14) 지옥에 관한 중요한 불교경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였다. 道端良秀, 1979 『中國佛教思想史の硏究』, 東京 : 平樂寺書店 ; 石田瑞麿, 1990 「地獄とは何か」 『地獄の世界』(板本要 編), 東京 : 溪水社 ; 蕭登福, 1989 『漢魏六朝佛道兩教之天堂地獄說』, 臺北市 : 學生書局.

15) 특히 인과응보론은 중국인들에게 새로운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을 불어넣어준 새로운 인생철학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를 『後漢記』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後漢記』卷10 「後漢孝明皇帝紀下 卷第十」 13年(國學基本叢書, 臺灣商務印書館) "王公大人觀死生報應之際 莫不矍然自失" 이에 대해서는 팡리티엔(김봉희·이봉순·황성규 번역), 2006 『중국불교철학-인생론-』,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출판부, 137~147면 참조.

16) 小川貫弌, 1990 「目連救母變文の源流」 『地獄の世界』(板本要 編), 東京 : 溪水社, 287면. 그러나 장춘석은 이 경전이 위경이라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장춘석, 2001 『目連說話新論』, 景仁文化社, 80~82면.

17) 澤田瑞穗, 앞의 논문, 370~371면.

공부를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일반인들이 경전을 읽어 지옥을 이해했을 리 만무다. 그러면 일반인은 어떻게 지옥관념을 접하여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세 가지 정도의 매개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는 講經(특히 寺外大衆을 대상으로 한 俗講)이나 說敎의 기회를 통해서이다. 중국에서 唱導師, 俗講僧, 化俗法師, 說法師, 遊行僧, 邑師, 社僧이라 불렸던 불교의 專門敎化者들은 이러한 기회에 일반인들에게 지옥관념을 설파하면서 불교적 삶을 따를 것을 권유했을 것이다.[18] 唐代의 惠寬이라는 승려는 당시 지옥설의 교화자로서 인기를 한 몸에 받아 成都의 절마다 그를 초청했는데 그가 가는 곳마다 보시물이 산처럼 쌓였었다고 한다.[19] 지옥이야기는 특히나 공포감을 조성하며 선동적일 수 있는데, 공포나 선동은 사람들의 마음이나 행동을 움직이는 심리적 기제이기도 하다.

강경이나 교설의 때에 '이야기(설화)'는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훌륭한 매개가 될 수 있었을 터인데, 이때 이야기의 소재는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찾아지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야기나 주변 사람들의 체험 같은 데에서 찾아지기도 했을 것이다. 이러한 체험담은 믿을 만한 정보 제공자와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등장시킴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이 진실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지옥 관련 이야기는 그 자체로 기이하고 흥미로워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적절했기에 많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유포되었고, 나아가 그런 이야기들을 담은 설화집들이 편찬되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 중국에서는 남북조시대에 『幽明錄』, 『冥祥記』, 唐代에 『冥報記』와 같은 지옥 관련 이야기들을 포함한 설화집들이 편찬되었고, 『金剛般若靈驗記』, 『金剛般若經集驗記』, 『弘贊法華傳』, 『地藏菩薩像靈驗記』와 같은 각종 感應傳이나 靈驗傳들도 편찬되었다.[20] 이의 영향을 받으면서 일본에서도 『日本靈異記』, 『今昔物語集』과 같은 지옥이야기를 포함한 설화집들이 편찬되었다.

경전의 내용을 풀이한 설명문인 變文도 일반인을 위한 교설에서 널리 사용되었던 자료이다. 특히 목련이 지옥을 순례하고 지옥의 비참함에서 어머니를 구한다는 한편의 드라마를 연출한 『우란분경』에서 발전한 目連變文이 굉장한 인기를 누렸다.[21] 서민을 위한 통속적인 종교서이자 교훈서도 편찬되어 널리 보급되었는데 도교의 지옥설과 결합하여 만들어진 『玉曆鈔傳』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22]

둘째는 畵像을 들 수 있다. 지옥과 같은 가상세계는 이미지를 통해 가장 구체적이고도 직접

18) 道端良秀, 앞의 책, 94~95면.
19) 『續高僧傳』卷第25 習禪6 釋惠寬 (大正新修大藏經 第50卷, 601면).
20) 팡리티엔(김봉희·이봉순·황성규 번역), 앞의 책, 155면.
21) 道端良秀, 앞의 책, 95~96면.
22) 澤田瑞穗, 앞의 논문, 366면.

적으로 표현된다. 지옥의 화상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옥을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으로 만들기 때문이다.[23] 문헌을 볼 수 없었던 일반인들에게 사원 벽에 그려진 지옥의 그림은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24] 지옥관념, 즉 인과응보설에 의한 사후심판과 징벌의 관념에 눈을 뜨게 하는 강렬한 계기가 되었다.[25] 중국에서는 당대에 벽화나 掛圖로 地獄變相圖가 많이 그려져 그 설명문인 變文과 함께 敎化僧의 자료로 널리 이용되었다.[26] 일본에서도 나라시대 이후 지옥의 회화적 표현이 시도되었고 평안시대에는 사원에 地獄變의 벽화가 많이 그려졌다.[27]

셋째는 의례를 통해서이다. 七七齋나 盂蘭盆齋, 水陸會, 施餓鬼會 등이 지옥관념과 관련이 있는 불교의례인데, 이러한 불교의례에서는 지옥과 관련한 이야기가 베풀어지기도 하고 그림이 보여지기도 하며 또는 연극적 요소를 포함한 놀이 같은 것들이 행해지기도 하여,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이것들과 접하면서 지옥관념을 받아들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특히 각종 음악과 雜技가 펼쳐졌으며 목련이야기가 일종의 지옥극으로 공연되었던 우란분재 때에 사람들은 놀이에 참여한 흥분된 분위기 속에서 지옥관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이다. 目連戱는 연극적 놀이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주술적 분위기와 공포심을 자극하는 무대 장치와 행위로 큰 인기를 끌었는데,[28] 중세 유럽의 기독교 축제 때 행하던 聖史劇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부분이 지옥 장면이었다고 한다.[29] 또 불교가 뿌리를 내리면서 우란분재는 전래의 농경의례나 조상의례와 결합되어서 세시풍속이 되고[30] 칠칠재는 불교식 상장례로 지켜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은 불교의 지옥관념이 일반인들의 생활원리에 깊게 침투하였던 모양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지옥관념의 의미와 이것이 어떻게 일반인들에게 전달되었을까를 대강 살펴보았다. 그런데 같은 불교의 지옥이라도 각 지역이나 문화마다, 그리고 시대마다 그 전개 양상은 달랐다

---

23) 유희수, 앞의 논문 참조.

24) 『全唐文』卷753, 杜牧6 「杭州新造南亭子記」(臺灣大通書局印行 『全唐文』16) "次殿左廊, 悉圖其狀(필자주 地獄), 人未熟見者, 無不毛立神駭"이라고 하였는데, 사찰에 그려진 지옥의 모습을 보고 털이 곤두서고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하여 지옥 그림이 사람들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 일으켰을지 상상하게끔 한다.

25) 『日本高僧傳要文抄』에 인용된 尊意贈僧正傳에 의하면 지옥그림을 보고 쾌락을 쫓는 삶을 버리고 入山하려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는 표현이 있는데, 지옥그림이 사람들에게 준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貞觀十八年七月十五日生年十一, 參賜河東吉田寺見佛. 後壁有地獄畫. 其中圖繪造罪之人受苦之相. 忽捨遊樂之心, 卽發入山之志."). 家永三郎, 1990 「地獄變と六道繪」 『地獄の世界』(板本要 編), 東京 : 溪水社, 423면에서 재인용.

26) 道端良秀, 앞의 책, 95면.

27) 家永三郎, 앞의 논문, 423면

28) 우란분재 때의 目連戱에 대해서는 김영지, 2002 「目連戱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참조.

29) Alice K. Turner(이찬수 옮김), 앞의 책, 211~214면

30) 우란분재가 조상제사와 관련을 가지고 중국에서 널리 퍼지게 되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는 바이나 그것이 농경의례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정은 岩本裕, 1990 「盂蘭盆の原義とその史的背景」 『地獄の世界』(板本要 編), 東京 : 溪水社 참조. 한국의 농경세시풍속 중 7월 15일 백중일이 곧 우란분재일인데, 이 역시 농경의례와 조상의례와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되고 있다. 李昌植, 1994 「佛敎民俗學의 硏究序說－佛敎系에 歲時風俗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26, 민속학회 참조.

고 여겨진다. 그래서 불교 지옥관의 지역이나 문화마다의, 그리고 그곳에서의 시대마다의 전개 양상, 특히 일반인의 입장에서 받아들인 형태로서의 전개 양상을 살펴본다면 일정 사회의 문화적 특징이나 시대적 특징을 살펴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 한반도에 불교가 전래되어 그중에서도 지옥관념이 어떻게 유포되었고 수용되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자.

3. 통일신라시대 지옥관념의 유포

고대 중국에서 음침하고 무서운 지하세계에 대한 관념과 죽은 자들을 통제하는 저승에 관한 관념이 있었음을 들어 불교 수용 이전에도 지옥사상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31] 지옥사상의 핵심은 사후심판과 징벌에 있으므로 중국에서 본격적인 지옥관념의 전개는 역시 불교 수용 이후 불교 지옥사상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남북조시대 이후 많은 지옥관련 경전들이 번역되면서 수당대 이후에는 불교의 지옥사상이 중국인들의 사고와 생활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32]

고대 일본에도 어둡고 무서운 지하세계에 대한 관념은 있었으나 사후심판과 징벌을 핵심으로 하는 지옥관념이 일본인에게 영향을 주게 된 것은 역시 불교 수용 이후라고 할 수 있다.[33] 특히 私度僧 景戒가 『日本靈異記』를 편찬하게 되는 平安時代 초기 이후에는 일본인들의 생각과 생활 전반에 불교의 지옥사상이 크게 영향을 끼쳤다.[34]

한반도에도 불교 전래 이후 지옥사상이 소개되었으므로 통일신라시대 사람들도 지옥에 대해 알게 되었을 것이다. 지옥관념은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정토신앙과 짝을 이루기 때문에,[35] 통일신

31) 于爲剛, 앞의 논문 ; 余英時, 1985「中國古代死後世界觀的演變」『中國哲學史硏究』4 참조.

32) 梁代에 편찬된 『經律異相』卷49, 卷50의 地獄部 上下2篇에는 지옥의 참상과 그 고통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는데, 이미 남북조시대에 남조불교계에 상세한 묘사를 갖춘 지옥사상이 전개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道端良秀, 앞의 책, 92면.

33) 일본민족에게도 원래 지옥사상이 있었다고 하고 보는 견해도 있다. 泉芳璟, 1941 『地獄極樂—來世思想考察』, 法藏館(山口昌男, 1990「地獄以前—シャーマニズムの日本的展開」『地獄の世界』(板本要 編), 東京 : 溪水社, 7면에서 재인용). 그러나 고대 일본의 저승에 대한 관념에서도 사후심판과 징벌의 관념은 없으므로 일본에서 지옥관념의 전개 역시 불교 수용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4) 石田瑞麿, 1985 『地獄』, 法藏館, 129~130면(李市埈, 2007「平安時代における盂蘭盆會の考察」『日本文化學報』34, 한국일본문화학회, 285면에서 재인용).

35) 물론 불교에서 원래부터 지옥과 극락이 세트로 등장해 발전한 것은 아니어서, 지옥사상이 먼저 등장하였고 나중에 극락사상이 나와 불교의 사후세계관에서 지옥과 극락이 相對가 되는 짝을 이루었다(梅原猛, 앞의 책, 6~9면). 중국이나 일본에서 정토교의 융성은 지옥의 공포에 의해 발전한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이에 대해서는 道端良秀, 앞의 책 98면과 梅原猛, 앞의 책, 54면을 볼 것. 일본의 源信이 지은 지

라시대 아미타신앙의 유행으로 어떤 식으로든 지옥관념이 전해졌을 것을 짐작할 수 있으며, 또 末法時代에 罪業으로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한다는 지장보살에 대한 신앙의 유행도 지옥관념의 유포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36]

일반인들이 지옥에 대해 알게 되는 계기를 앞에서 講經(특히 俗講)과 畵像, 儀禮를 들었었다. 불교 수용 이래 거행된 많은 講經法席에서 속강 역시 행해졌을 것인데, 속강 때에는 대중들에게 불경의 내용을 쉽게 설명하거나 그 교리를 바탕삼아 흥미로운 이야기를 구성하여 연설하였다.[37] 또 세간의 勸善과 募緣을 위해 승려나 거사들이 權化法席을 베푸는 과정에서 청중의 감흥을 돋우기 위해 法談·念佛·歌舞·演劇 등이 베풀어졌다.[38] 이러한 때에 활용하기 위해 승려나 재가의 지식인들은 佛典의 지옥 이야기를 신라인의 입장에서 해석하거나 신라의 상황에 맞게 변형시킨, 즉 친숙하면서 실감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지옥 이야기를 만들어 유포하였을 것이다.

신라에서 불교와 관련된 설화는 불전과 중국의 불교설화집이 그 저본이 되었다. 신라 승려들의 저술에 불전설화가 풍부한 불교경전이 논급되고 있는 점, 龜兎說話와 같은 불전에서 나온 설화가 이미 삼국시대의 설화에 보이고 있는 예 등으로 보아 일찍부터 민간에 불전설화들이 침투하고 있었을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불교설화집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殊異傳』이 찬술되기도 하였다.[39]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8세기경 義寂은 중국의 불교설화집을 저본으로 하여 『法華經集驗記』라는 불교영험담집을 찬술하였다.[40] 『법화경집험기』는 『법화경』과 관련된 인과응보담 모음집으로, 이러한 유의 불교 경전과 관련한 인과응보담은 이미 위진남북조시대 이래 중국에 널리 퍼져 있었고 관련 설화집도 여러 권 편찬되었었다. 이러한 설화집에는 불교 경전을 업신여겨 지옥에 떨어졌다는 지옥설화를 상당수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의적의 『법화경집험기』는 중국의 불교 영험담집인 『冥報記』나 『金剛般若經集驗記』에 실린 영험담을 모은 것으로, 여기에 당시 신라사회에 적용되어 신라인의 이야기로 전승되었던 이야기는 실려 있지 않다.[41] 『법화경집험기』는

옥에 관한 경전집이라 할 수 있는 『往生要集』은 일본 정토교를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松濤誠達, 1988 「淨土宗」 『佛敎硏究入門』(平川彰 編著, 楊氣峰 譯), 經書院 참조.

36) 그러나 통일신라시대 지장신앙이 적극적으로 지옥관념을 전파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다. 신라의 지장보살신앙은 出家者 중심의 占察懺悔修行을 중심으로 한 自力的 신앙형태와, 罪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稱名·供養 등으로 지장보살의 他力에 의하여 구제받으려는 在家者 중심의 신앙형태로 전개되었을 뿐이었고(洪潤植, 1997 「新羅時代 眞表의 地藏信仰과 그 展開」 『佛敎學報』34,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365~366면), 지옥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 것은 찾아볼 수 없다.

37) 史在東, 1996 『佛敎系 敍事文學의 硏究』, 中央文化社, 62면.

38) 史在東, 위의 책, 81면

39) 인권환, 1999 『한국불교문학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163면, 196~197면.

40) 『법화경집험기』는 의적이 690년 전후한 시기 신라에 돌아와 그 후 찬술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박광연, 2007 「의적의 『법화경집험기』 편찬 배경과 특징」 『역사와 현실』66, 한국역사연구회), 특히 718년에 편찬된 『金剛般若經集驗記』를 주로 인용한 것으로 보아 718년 이후에 찬술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金敬姬, 2003 「義寂의 『法華經集驗記』에 대한 고찰」 『日本文化學報』19, 한국일본문화학회, 4면.

41) 한반도 내의 법화경 영험으로는 『觀世音應驗記』에서 인용한 백제인 發正의 이야기만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 발정이 귀국길에 越州에서 들었던 『법화경』에 관한 영험담으로 백제에서 형성되고 전승되었

의적이 신라에 귀국한 후에 찬술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신라의 이야기를 집어넣지 않은 이유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중에 중국에서 만들어진 불교 관련 설화들이 알려졌고 여기에서 다시 이러한 이야기들을 신라인의 이야기로 적용시키려는 노력들이 있었을 것이다. 예를 들면 8세기에 편찬된 『弘贊法華傳』卷9에는 신라인 金果毅의 아들은 어려서 출가하여 『법화경』을 읽다가 2권에서 그만 한 글자를 태우고 말았는데, 이 사람이 죽어 또 다른 김과의의 집에 환생해서도 역시 출가하여 『법화경』을 독송함에, 매번 2권에 와서 한 글자를 잊어버리곤 했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다.[42] 이러한 모티브는 7세기 중엽 唐의 唐臨이 편찬한 『冥報記』卷中 崔彦武 이야기와[43] 『홍찬법화전』卷6 秦郡東寺沙彌 이야기에서[44] 출발하였는데, 신라에 전해져서는 김과의의 이야기로 신라적 각색을 거치고, 또 일본에서 가서는 『日本靈異記』의 上卷 18話 憶持法華經現報示奇表緣이라는[45] 일본인의 이야기로 각색되어 전승되었던 것이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이야기를 토대로 신라와 일본에서 각기 자기 입장에서 다시 각색하여 만들어 유포하였던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잘 보여주는 것이 『삼국유사』에 실린 '善律還生' 이야기이다.

> 望德寺의 승려 善律은 돈을 시주받아 六百般若經을 이루고자 하다가 완성하기 전에 갑자기 陰府에 잡히어 갔다. 冥司가 "너는 인간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였느냐?"하고 물어 선율은 "저는 말년에 大品經을 이루고자 하다가 완성을 하지 못하고 왔습니다."하였다. 그랬더니 명사가 말하기를 "너의 수명은 기록부에 의하면 비록 다하였으나 훌륭한 소원을 아직 마치지 못하였으니 다시 인간세상으로 돌아가 寶典을 다 마치도록 하여라." 하고 돌려보내주었다. 돌아오는 길에 한 여자를 만났는데 울며 선율 앞에서 절하며 말하기를 "저도 南閻州 신라인이었는데, 부모가 金剛寺의 水田 一畝를 몰래 빼앗은 죄에 연루되어 冥府에 잡혀와 오랫동안 심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이제 스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시면 저의 부모에게 말씀을 드려 빨리 그 田을 돌려주라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세상에 있을 때 胡麻油를 상 밑에 묻고 또 곱게 짠 베를 침구 사이에 간직하여 두었으니 스님은 그 기름을 가져다 부처님께 등불을 밝혀주시고 그 베를 팔아 경전을 만드는 비용으로 삼아주시면 저승에서도 은혜가 되어 제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선율이 "너의 집은 어디에 있는가?" 하니 여자는 "沙梁部 久遠寺 西南里입니다."라 하였다. 선율이 그 대답을 듣고 나서 길을 가다고 곧 소생하였다. 이때는 선율이 죽은 지 이미 10일이 되어 남산 동면 기슭에 장사를 지냈으므로 무덤 속에서 3일 동안이나 소리쳐 불렀다. 지나가던 목동이 이 소리를 듣고 절에 와서 말하니 절의 승려가 가서 무덤을 파고 선율을 꺼내었다. 선율이 자신이 겪은 일을 자세히 말하고 또 그

던 이야기는 아니다. 金相鉉, 2000 「義寂의 『法華經集驗記』에 대하여」 『東國史學』34, 동국대학교 사학회 참조.

42) 『弘贊法華傳』卷第9, 轉讀第七 唐新羅國沙彌 (大正新修大藏經 第51卷 41下).

43) 『冥報記』(續修四庫全書1264·子部·小說家類, 上海 : 上海古籍出版社) 卷中 398下.

44) 『弘贊法華傳』卷第6, 誦持第六 秦郡東寺沙彌(大正新修大藏經 第51卷 29下).

45) 『日本靈異記』(日本古典文學全集, 東京 : 小學館) 上卷 18話 憶持法華經現報示奇表緣.

> 여자의 집을 찾았더니 여자가 죽은 지 15년이 되었으니 기름과 베는 그대로 있었다. 선율이 그 여자가 가르쳐준 대로 하여 명복을 빌었더니 여자의 혼이 와서 선율의 은혜에 힘입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당시 사람들이 듣고 놀라고 감탄하지 않는 자가 없었고 寶典을 완성하는 것을 도우니 그 경전은 지금 경주 僧司의 서고 중에 보관되어 있고 매년 봄가을에 펼치어 재앙을 물리치도록 기원한다.[46]

어떤 사람이 죽어서 명부에 끌려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고 소생하여 이를 이승의 사람들에게 전해준다는 이야기는 이미 중국에서 형성된 冥界說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명부에 있는 수명기록부에 인간의 수명이 정해져 있다든지, 죽음의 원인은 그 기록부상의 수명이 다되어 명부에서 보낸 使者에게 잡혀가기 때문이라든지, 생전의 寫經이나 讀經, 造像행위가 善業으로 판정을 받는다든지, 이승으로 돌아올 때 지옥에서 고생하는 사람의 부탁을 받고 온다든지 하는 이야기들도 중국의 설화집인 『幽明錄』이나 『冥祥記』, 『冥報記』 등에서 모두 볼 수 있는 것들이다.

아마도 남북조시대 이후로 중국에서 불교의 지옥관념과 관련하여 형성된 명계설화가 신라에도 알려졌고, 신라에서는 이러한 설화들을 약간씩 변화시키고 또 신라의 구체적인 지명을 집어넣음으로서 시공간상의 현실감을 가미하여 저승설화들이 만들어져 유포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47] 위 이야기에서 저승(지옥을 포함하여)[48]에 다녀온 사람이 승려이고 이 이야기가 고려시대

---

46) 『三國遺事』卷第5 感通第7 善律還生. 『삼국유사』의 편찬 시기가 늦어서 여기에 실린 설화들도 그것이 작성·유행한 시기를 일단은 의심해보아야 한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이미 『萬葉集』이나 『日本靈異記』 등에 불전설화의 영향을 받은 설화들이 다수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통일신라시기 불전이나 중국에서 만들어진 불교 관련 설화들이 알려졌었고 또 신라적 각색을 거친 이야기들도 작성·유행하고 있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선율환생' 이야기도 언제 만들어지고 전승되었는지 확실한 것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고려 말까지도 경주 僧司의 書庫 중에 보관된 『육백반야경』의 연기설화로 전승되고 있었고, 신라시대의 사찰이나 지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것으로 미루어, 통일신라시대에 형성되어 전승된 설화로 보는 것에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망덕사나 금강사의 건립 연대는 7세기 이후이고 특히 망덕사는 신문왕 4년(684년)에 준공되었다고 하므로 적어도 이 이야기는 그 이후에 형성되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47) 그런데 '선율환생' 이야기는 중국의 선행한 불교설화집보다는 『日本靈異記』下卷 23話 用寺物復將寫大般若建願以現得善惡報緣 이야기와 많은 부분에서 유사점이 발견되어 흥미롭다. 선율환생 이야기에서 因果는 두 사람의 이야기로 나누거나 합쳐서 설정이 되었는데, 하나는 선율이 불교 경전, 그중에서도 『육백반야경』을 書寫하는 善因으로 蘇生의 기회를 얻는 것, 또 하나는 사량부 여인의 부모가 사찰의 토지를 盜用하여 지옥의 징벌을 받는다는 것, 나머지 하나는 선율이 경전을 완성해 여인의 고통을 덜어주었다는 것이다. 위 일본의 이야기에서도 비슷한 인과관계가 설정되지만 그것이 한 사람의 이야기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는 다르다. 大伴連忍勝이라는 사람이 『大般若經六百卷』을 書寫하고자 발원하고 절의 재물을 모으다가 갑자기 죽어 명부에 갔는데, 명부의 판관이 '어떤 선업을 쌓았느냐' 하고 물으니 '『대반야경육백권』을 서사코자 했으나 이루지 못했다'고 하니, 판관은 사찰의 물건을 함부로 사용한 죄를 치르고 이승으로 돌아가 寫經의 願을 이루고 사찰의 물건을 갚으라 하였고 이에 소생하였다는 것이다. 『日本靈異記』(日本古典文學全集, 東京 : 小學館) 下卷 23話 用寺物復將寫大般若建願以現得善惡報緣, 318~319면 참조.

48) 엄밀하게 말하자면 명부는 심판을 하는 곳이고 지옥은 심판에 따라 징벌을 하는 곳으로 구분이 된다.

까지 계속된 轉經佛事의 인연설화였다는 것은 사찰의 불교행사 때 승려들이 대중을 상대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 유포했을 상황을 짐작해볼 수 있다.

'선율환생' 이야기에서는 사찰의 재물을 함부로 사용하면 지옥에 간다는 것, 경전을 받들면 善果를 받는다는 것, 또 불교식으로 死者의 명복을 빌어주면 지옥에 빠진 사자라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고, 이러한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들은 사람들은 그러한 행동을 해야 할 필요를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49]

그런데 지옥 이야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생시에 어떠한 죄를 지어서 지옥에 떨어졌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그래야 이런 이야기를 통해 어떠한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율환생' 이야기에서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는 사람은 사량부에 살았다는 한 여인인데, 재미있는 것은 이 여인이 地獄苦를 받는 원인이 자신이 저지른 죄가 아니라 그녀의 부모가 저지른 죄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불교에서 인과응보의 원칙은 自因自果에 있다. 중국 東晉의 祖超(336년~377년)가 쓴 『奉法要』에서는 자신이 행한 일은 장차 자신과 가정과 가족에게 응보를 가져다주고 후대의 자손에게도 화복을 가져다주는 근거가 된다고 하는 중국 전래의 인과응보관념을 비판하면서 『泥洹經』을 인용하여 '아버지가 악한 일을 하여도 아들이 대신 받지 아니하며, 아들이 악한 일을 하여도 아버지 역시 대신 받지 않는다. 착한 일을 하면 자신이 복을 얻고 악한 일을 하면 자신이 재앙을 받는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50]

현재 필자가 확인할 수 있었던 통일신라시대와 비슷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는 중국이나 일본의 지옥 이야기 중에는 부모나 자식의 잘못으로 연대 책임을 져서 지옥에 빠졌다는 이야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51] 또 인과관계가 부모와 자식 사이에 물려있는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명보기』에는 부모의 돈을 훔친 딸이 죽어서 양으로 태어났다든가,[52] 아들 몰래 재산을 사용한 어

그러나 저승 관련 설화나 그림에서 이를 분명히 구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49) 이러한 메시지는 이미 중국의 여러 불교 설화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바이다. 특히 사찰 물건을 盜用하면 지옥벌을 받는다는 것은 5세기 말에 편찬된 위진남북조시대의 대표적 佛敎志怪小說集인 『冥祥記』115話를 비롯하여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며, 『일본영이기』에서 찬자인 景戒는 寺物이나 僧物을 도용하는 것은 큰 죄악임을 여러 경전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日本靈異記』上卷 30話, 中卷 9話, 中卷 32話, 下卷 26話 참조). 『명상기』에 대해서는 延炤皓, 2002 「冥祥記 校釋」,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참조.

50) 팡리티엔(김봉희·이봉순·황성규 번역), 앞의 책, 170~171면.

51) 부모의 잘못으로 자식이 벌을 받았다는 이야기로는 현재로서는 『法苑珠林』 敬法篇에서 宋의 비구니 智通이 파계 후에 경전을 베낀 비단으로 아들에게 옷을 지어주었더니 아들이 온몸이 불에 타는 듯 문드러지는 現報를 받았다는 이야기만을 찾을 수 있었다(『法苑珠林』卷第18 敬法篇 感應緣 宋尼釋智通 (大正新修大藏經 53卷, 418下)). 그런데 지통의 아이가 7세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결국 이 이야기에서도 벌을 받는 주체는 지통이었음을 말하고자 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명상기』25話 중 伯父가 자신의 지옥벌을 대신 받게 하려고 어려서부터 불법을 받들던 조카를 명부로 불렀으나 태산부군에게 오히려 혼이 나게 된다는 이야기가 죄의 가족 공동 책임이라는 점에서 약간의 유사점을 가지고 있으나 태산부군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다르다.

머니가 죽어서 나귀로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있고,[53] 『일본영이기』에는 자식의 물건을 도용한 부모가 소로 태어나는 惡果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2話 보인다.[54] 이들 이야기에서는 부모나 자식의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여 모두 자신이 그 벌을 받는 것이고, '선율환생' 이야기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에 아무런 물건의 소유 관계와 盜用이라는 행위 설정도 없이, 다만 부모가 사찰 토지를 도용한 죄에 그 딸이 연루되어 벌을 받는다고 하였다.

불교의 인과응보의 원칙을 고려하면 '선율환생'에서 제시한 이야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부모가 잘못을 하면 자식이 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받아들였을 것이다. 비슷한 시기 중국의 불교 설화에서도 별로 찾아볼 수 없는 설정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생각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었는가를 살피는 것도 흥미로운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와 더불어 고려할 수 있는 여러 수준의 자료들을 가지지 못하였으므로, 이후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조금 더 많은 자료들과 함께 연관지어 살펴볼 필요가 있으므로, 앞으로의 과제로 넘긴다.

신라의 승려 順璟과 관련해서도 지옥설화가 하나 전한다. 『宋高僧傳』에 의하면 순경은 화엄경을 비방하며 믿지 않은 죄로 살아 있는 몸으로 지옥에 떨어졌는데, 그 지옥으로 통한 구덩이를 順璟捺落迦라 하며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고 하였다.[55] 이 이야기가 당과 신라 어디에서 만들어진 것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신라에서 형성·유포된 설화로 보기도 한다.[56] 불교를 비방한 죄를 지어 산 채로 지옥구덩이에 빠졌다는 이야기는 『大唐西域記』에 종종 나오고 있다.[57] 그런데 순경의 지옥나락가 이야기가 신라에서 형성되고 유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승려의 불교학 내의 상호 비판과 관련된 이야기이므로 일반인들에게 유포되었을 지옥관념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본다.

한편 본격적인 지옥설화는 아니지만 永才라는 승려가 산속에서 도둑들을 만났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재물이 지옥에 가는 근본이라 설교하니 도둑들이 감동받아 영재를 따라 갔다는 이야기가 있다.[58] 이것은 遇賊歌라는 노래를 포함한 가요전설로서 이러한 가요전설은 포교를 위한 설법이나 효율적 실연에서 대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59] 남의 재물을 탐내는 것

52) 『冥報記』(續修四庫全書1264·子部·小說家類, 上海 : 上海古籍出版社) 卷下 13話(410면), 22화(414~415면).
53) 『冥報記』(續修四庫全書1264·子部·小說家類, 上海 : 上海古籍出版社) 卷下 15話(410~411면).
54) 『日本靈異記』(日本古典文學全集, 東京 : 小學館) 上卷 10話(87면), 中卷 15話(187~188면).
55) 『宋高僧傳』卷第4, 義解篇第二之一 釋順璟 (大正新修大藏經 50卷, 728上).
56) 김상현, 1999 『신라의 사상과 문화』, 一志社, 313~314면.
57) 『大唐西域記』卷第4 (大正新修大藏經 50卷, 892中), 卷第6 (大正新修大藏經 50卷, 899下~900上), 卷第11 (大正新修大藏經 50卷, 935下). 불교 비방이나 지옥구덩이 이야기는 없지만 『일본영이기』에도 어머니를 죽이려 하다가 땅이 갈라지면서 빠져 죽은 자의 이야기가 나온다(『日本靈異記』(日本古典文學全集, 東京 : 小學館) 中卷 3話, 152~153면).
58) 『三國遺事』卷第5 避隱第8 永才遇賊.
59) 史在東, 앞의 책, 35~37쪽.

은 지옥 가는 악업이라는 교훈을 주면서 한편으로 재물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흉악한 사람들도 지옥관념을 가지고 교화할 수 있다는 주장을 동시에 하고 있다.[60]

또 의상의 제자였던 眞定이 늙은 어머니 때문에 출가하는 것을 머뭇거리자 그 어머니가 '나 때문에 출가를 못하는 것이 나를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것이다'라며 출가를 권유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61] 이는 승려의 수행을 방해하는 것이 지옥 가는 惡行의 하나임을 말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통일신라시대를 배경으로 성립되어 일반인들에게 유포되었을 지옥 관련 이야기들을 살펴보았다. 이들 이야기에서 보면 사찰 재물(토지)을 도용하거나 남의 재물을 탐내는 것, 또 승려의 수행을 방해하는 것이 지옥벌을 받게 되는 원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악행은 중국이나 일본의 지옥 관련 설화 중에 누누이 언급되는 것들이므로 새로울 것은 없다. 다만 앞에서 말했듯이 부모의 죄에 연루되어 지옥벌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특이한 설정이라는 것과, 또 중국이나 일본의 설화들 중에는 殺生이 지옥 가는 무거운 악행임을 강조하는 이야기들이 무척 많은데 반해[62] 『삼국유사』의 설화 중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없다는 것도 특이한 점으로 지적하고 싶다. 물론 『삼국유사』에도 살생을 경계하는 이야기들은 있지만, 대개는 살생에 대한 참회가 불교에 귀의하도록 이끄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지,[63] 살생 때문에 지옥에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없다.

분명 통일신라시대 불교의 지옥관념이 유포되었으며,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야기들은 일반인들이 지옥을 이해하도록 하는데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통일신라시기 지옥 관련 자료는 같은 시기 중국이나 일본의 그것들에 비해 그 양이나 내용에서 무척 빈약하다. 통일신라시기 地獄畵像에 관한 자료나 유물도 알려진 것이 없다. 지옥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는 지옥순례담과 같

60) 이러한 주장은 정치적 지배자나 교화자의 입장에서 지옥관념의 효용성을 이야기할 때 흔히 내세우는 것이다(부처가 말한 인과응보의 윤회설을 폭력배에게 듣게 하였더니 그들이 무서워하며 따르게 되니 인과응보의 윤회설은 이런 자들을 교화하고 다스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 것은 그 한 예가 될 것이다. 宋濂, 「重刻護法論題辭」『護法遺教心印門·護法論』 "西方聖人歷陳因果輪回之說, 使暴强聞之, 赤頸汗背, 逡巡畏縮, 雖蠭蟻不敢踐履, 豈不有補治化之不足." 팡리티엔(김봉희·이봉순·황성규 번역), 앞의 책, 203면에서 재인용). 그래서 민중 교화를 위해 지옥관념을 포함한 인과응보설을 가지고 설득하는 것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기도 하였다. 고려시대 王冲이 晋陽通判으로 있을 때 거제에 진을 치고 날뛰던 해적들을 禍와 福으로 깨우치자 모두 따라왔다고 하는데(「王冲 墓誌銘」(1159). 金龍善 編著, 1993 『高麗墓誌銘集成』, 翰林大學校 아시아文化硏究所, 176면), 禍와 福으로 가르쳤다는 것은 곧 불교의 인과응보설로 교화를 했다는 뜻이다. 墓誌銘의 기술인만큼 어느 정도의 사실성을 가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불교를 적극적으로 체화하였던 고려시대의 지배층들에게 지옥관념을 포함한 인과응보설은 도적들도 교화시킬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했었음을 알 수 있다.

61) 『三國遺事』 卷5 孝善第9 眞定師孝善雙美.

62) 예를 들면 『명보기』에는 계란을 좋아해서 지옥에 떨어진 주무제 이야기라든지(卷下 4話, 408면), 公的인 연회를 위해 살생한 것에 대해서도 지옥의 징벌이 내려졌다는 이야기(卷下 19話, 412~413면), 도살당한 동물이 명부에서 살생의 죄목으로 고소를 한다는 이야기(卷下 12話, 410면), 또 자신이 죽은 후 다른 사람이 양을 죽여 자기에게 제사를 했기 때문에 자신이 지옥벌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卷中 10話, 403면)들은 살생에 대한 극단적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영이기』에도 살생이 무서운 악행임을 누누이 말하고 있다.

63) 『三國遺事』卷第5 孝善第九 大城孝二世父母와 『三國遺事』卷第5 神呪第6 惠通降龍 참조.

은 본격적인 지옥 관련 설화도 '선율환생' 외에는 찾아볼 수 없다. 또 신라시대에는 같은 시기 중국이나 일본에서와 같이 지옥설화를 포함하여 인과응보담을 모은 설화집의 편찬 노력도 없었던 것 같다.[64] 또 강경법회를 비롯한 여러 불교의식에서 구체적으로 지옥에 대한 이야기나 이미지가 전달되었음을 알려주는 자료도 없다. 즉 일반인들에게 지옥관념이 유포되는 중요한 매개인 설화, 畵像, 의례의 측면에서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자료를 거의 남기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삼국 간 자료의 절대적인 양적, 질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일 것이다. 그런데 통일신라시대 불교설화들이 모아져 있는 『삼국유사』에조차 지옥 관련 이야기는 극히 적다. 물론 통일신라시대에 지옥설화가 널리 유포되기는 했었으나 『삼국유사』의 편자인 일연의 편찬 태도 때문에 지옥관련설화들이 배제되었을 수도 있다.[65] 그러나 단지 설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畵像 등에서도 지옥 관련 자료의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아무래도 삼국간의 지옥관념의 전개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에 대해 필자는 지난 논문에서 고대 한국에는 어둡고 무서운 지하세계에 대한 관념이 희박한 편이어서 불교의 지옥관념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이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의도적으로 피하려는 태도를 취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무서운 저승 관념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지옥과 관련한 인과응보담과 같은 이야기가 덜 유포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었는데,[66] 비슷한 시기 삼국 간에 보이는 이러한 차이는 아무래도 지옥관념 이해에 대한 삼국의 문화적 차이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이 문제는 이후 시기의 자료들을 더 비교·검토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한편 통일신라시기 지옥관념의 전개와 관련하여 이 시기 상층지배층에게 지옥관념은 그리 두려운 것은 아니지 않았을까 하는 문제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 원래 불교의 지옥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이다.[67] 그러나 통일신라시대 귀족들은 자신들이 지옥에 갈 수 있다는 두려움은 그

64) 나희라, 2006「고대 한국인의 저승관과 지옥관념의 이해」『韓國文化』38,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88면.

65) 『三國遺事』卷第3 興法第3 阿道基羅에 보면 北魏의 승려 曇始의 이야기를 『梁高僧傳』에서 옮겨 소개하고 있는데, 『高僧傳』 曇始傳에는(『高僧傳』卷第10 神異下(大正新修大藏經 50, 392면)) 세상 사람들이 담시를 白足和尙이라 부르게 된 연유를 설명한 다음 王胡라는 사람이 지옥에서 果報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고 난 뒤에 善業을 쌓기 위해 백족화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나 『삼국유사』에서는 백족화상이라는 호칭을 갖게 된 연유만 소개하고 지옥순례담은 생략하고 있는데, 『삼국유사』에 지옥 관련 이야기가 적다는 것과 관련지어 생각해본다면 일연의 불교신앙상의 입장에서는 지옥관념과 그를 통한 교화라든지의 문제는 그다지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다.

66) 나희라, 앞의 논문 참조.

67) 『廣弘明集』卷第十 辯惑篇二之六「周祖平齊召僧叙癈立抗詔事」(大正新修大藏經 第52卷 史傳部4 153면)에서 폐불을 단행하려는 周武帝에 대항해 慧遠이 "阿鼻地獄은 귀하고 천함을 가리지 않는데 폐하께서는 어째서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遠抗聲曰, 陛下今恃王力自在破滅三寶, 是邪見人. 阿鼻地獄不簡貴賤, 陛下何得不怖.)"라고 한 것은 불교 지옥관념의 평등성을 잘 드러내는 것이었다.

리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같다. 전통적으로 신라의 왕과 귀족들은 죽어서 천상세계로 간다는 생각이 강했고, 또 불교 수용 이후로는 불교적 생사관에 의해 天界나 열반에 이르기를 빌었다.[68] 왕이나 상층 귀족의 죽음에서는 당연히 좋은 곳으로 가도록 빌었지 惡趣에 빠질 수 있다는 염려는 하지 않았던 것 같다. 윤리적 행위의 여부에 의해 내세의 삶이 변화할 수 있다는 관념을 알고는 있어도 상당수의 특권층들은 자신들이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안락한 사후 삶을 보장받을 특권에 대한 기대를 쉽게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69]

4. 나말려초기 지옥관념의 전개

그런데 신라 하대 이후 중앙귀족들 간의 정쟁으로 정국이 불안해지면서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는 가운데, 중앙정부와 귀족들의 수탈에 각 지역 농민의 저항과 도적의 출몰이 이어지고 이를 계기로 지방세력들은 무장력을 갖추고 서로 대립하는 변화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당대 사람들에게 대혼란으로 여겨졌고, 불교 승려들은 이 시기를 末世로 인식하였다.[70] 인간의 자각과 실천을 주장하는 불교의 입장에서 인간세상의 혼란함은 결국 인간 스스로가 자초한 것으로서, 반성과 참회를 통해 스스로를 성찰해야 할 필요가 절실해진다. 그리하여 현세의 혼란은 곧 지옥이 바로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있음을 말할 수 있는, 즉 지옥관념을 통해 반성과 참회의 삶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지방호족 출신인 고려 태조 왕건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두려움을 다음과 같이 표출하고 있다.

---

68)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사후 천상세계관이 어느 정도 지속되었던 것도 있고, 불교의 생사관을 받아들이면서 이전의 천상세계관과 유사한 天界往生을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것으로 생각했던 상황도 생각해볼 수 있다. 7세기 선덕여왕이나 김유신의 경우 죽어서 도리천으로 올라간다고 하였었고 9세기 후반 경문왕의 죽음에도 도리천으로 돌아간다는 표현을 하였다(나희라, 2003「고대 한국의 타계관」『한국고대사연구』30, 한국고대사학회, 107면). 왕의 죽음을 '乘天', '高昇淨輭', '登霞' 등으로 표현한 8세기 전반의 「皇福寺金銅舍利函記」에서는 왕과 그 가족들이 궁극적으로 열반에 이르기를 기원하는 표현을 하였다("聖曆 3년 경자년 5월 1일에 신목태후가 마침내 세상을 떠나 높이 극락에 오르고 대종 2년 임인년 7월 27일에는 孝照대왕도 승하하였다. 神龍 2년 경오년 5월 30일에 지금의 대왕이 부처 사리 4과와 6치 크기의 순금제 미타상 1구와『무구정광대다라니경』1권을 석탑의 둘째 층에 안치하였다. 이 福田으로 위로는 신문대왕과 신목태후, 孝照대왕의 대대 聖廟가 열반산을 베고 보리수에 앉는데 보탬이 되기를 빈다." 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1992『譯註 韓國古代金石文』제3권,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참조).

69) 일본의 경우도 平安貴族의 생활과 지옥사상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정신적 틈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다. 家永三郎, 앞의 논문, 440면.

70) 신라말 승려들의 비문에서는 대개 당시가 혼란기였음을 말하고 있다. 김두진, 1996「불교의 변화」『한국사』11(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국사편찬위원회, 207면 참조.

"제자는 공손히 스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대하고 진솔한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고는, "지금은 나라의 역적들이 점점 시끄럽게 하고 인근의 적들이 서로 침범하는 것이 마치 楚漢이 서로 버티고 있는 것과 같아서 아직 그 승부가 끝나지 않은 것이 36년이나 되었습니다. 항상 두 흉악한 무리가 있어 마음에는 비록 살리기를 좋아하지만, 반대로 점점 서로 죽이고 있습니다. 과인이 일찍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윽이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키고 있으나, 만약 살생을 주저하거나 적을 업신여겨 마치 구경하듯 방치해 두면, 나라는 물론 자신까지 위태롭게 하는 殃禍를 부를까 두렵습니다. 스님께서는 만 리의 먼 길을 사양하지 않고 오셔서 삼한을 교화하고 온 나라 강산의 곳곳마다 전쟁에 휩싸여 불타고 있음을 구제하시길 바라오니, 좋은 말씀이 있기를 바라나이다."라고 하였다. 스님께서 대답하시길 "무릇 도는 마음에 있는 것이지 일에 있는 것이 아니며, 불법은 자신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帝王과 匹夫는 닦는 바가 각자 달라서, 비록 군대를 움직이더라도 또한 백성을 어여삐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사해를 집으로 삼고 만민을 자식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고한 자를 죽이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어찌 죄가 있는 무리까지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선한 일을 받들어 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중생을) 널리 구제하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에 책상을 어지만지며 감탄하였다. "우리 俗人들은 심원한 진리가 먼 곳에 있는 것으로 잘못 알아서 미리 염라대왕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스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참으로 천상과 인간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였다. 스님은 다시 당부하기를 "가능한 한 사형할 죄인의 죽이는 시기를 완화하고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을 연민히 여겨 도탄에서 벗어나게 하라" 하였으니, 이것은 곧 스님의 德化였다.[71]

고려 태조는 佛法을 배워 殺生이 죄악이며 그 결과 지옥에서 염라대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 두려워했고, 利嚴에게 이 문제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있다. 이에 이엄은 죄지은 자를 죽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정치승려다운 해답을 주고 있다.

지옥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을 신라 귀족들과는 다른 지방 호족 출신의 이러한 태도는 지옥관념의 전개와 관련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통일신라시대 지옥관념이 유포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수용의 정도는 계층별로, 그리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달랐을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現世의 영화나 來生의 안락에만 가치를 두고 현실의 개

71) 「海州 廣照寺 眞澈大師 寶月乘空塔碑文」, 韓國佛敎金石文校勘譯註 卷二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高麗篇 1, "弟子恭對慈顔, 直申素懇, 今則國讐稍擾, 隣敵交侵, 猶似楚漢相持, 雄雌未決, 至於三紀, 常愴(倀)二兇, 雖切好生, 漸深相殺. 寡人曾蒙佛誡, 暗發慈心, 恐遺玩寇之口, 仍致危身之禍. 大師不辭萬里, 來化三韓, 救燔崑崗, 昌言有待. 對曰, 夫道在心, 夫在事, 法由己, 不由人, 且帝王與匹夫, 所修各異, 雖行軍旅, 且慇黎元. 何則, 王者, 以四海爲家, 萬民爲子. 不殺無辜之輩, 焉論有罪之徒. 所以諸善奉行, 是爲弘濟. 上乃撫机歎曰, 夫俗人迷於遠理, 預懼閻摩, 至如大師所言, 可與言天人之際矣. 所以救其死罪, 時緩虔劉, 憐我生靈, 出于塗炭, 此則大師之化也." 본문의 번역문도 위 역주본을 참고하였으나, 위 책의 번역을 그대로 옮긴 것은 아니고 필자가 수정하여 다시 옮겼으므로 원문을 모두 제시하였다. 李智冠 譯註, 1994 韓國佛敎金石文校勘譯註 卷二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高麗篇 1, 伽山文庫, 37~40면 참조.

혁보다는 타성에 의존했던 귀족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의해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는 지옥관념을 잘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데 사회적 대격변기를 맞아 혼란스러운 삶의 어두움과 고통을 경험하는 상황은 사람들이 지옥관념을 더 의미있게 받아들이게 했을 것이고, 특히나 짜여진 틀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행위에 의해 새로운 틀을 짤 수 있는 기회를 엿볼 수 있게 된 하급 지배층이나 지방민들로서는 지옥과 극락이 모두 자신들 운명 앞에 있다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 같다. 아마도 나말여초의 격변기를 거치면서 신라의 폐쇄적 신분질서가 붕괴되고 새로운 사회신분구조를 갖추게 되면서, 그와 함께 특권층이든 피지배층이든 모두에게 평등하게 열려있는 果報의 문으로서의 지옥관념이 진정으로 의미를 갖게 된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하여 고려시대에는 지옥관념이 분명히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생활에 이전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왕조 초창기 숙청을 단행하여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광종 역시 殺生에 대한 惡果를 걱정하여 罪業을 없애려고 齋會를 많이 열었다고 한다.[72]

한편 11세기 중엽 당시 불가의 풍속에 지옥관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우란분재가 성대히 거행되고 있었던 사정을 알려주는 자료가 있다.[73] 이 자료에 의하면 당시 고려에서도 상인들의 상거래행위도 이루어지고 술판도 벌어지는, 다양한 놀이가 펼쳐진 민간행사로서 우란분재가 행해졌던 것 같다. 인도에서 시작한 우란분재는 효사상과 상장례를 중시하는 중국사회에 민간의 통속불교신앙을 이끌던 불교행사로서[74] 민간습속에서 도교의 중원일과 결합하여 연중의례화하였고 그 행사에는 민간의 여러 놀이 또한 성대히 펼쳐졌었다.[75] 위 자료의 당시 고려 민간에서 행해지던 우란분재에 대한 묘사는 중국에서 유행했던 우란분재 때 각종 음악과 雜技가 펼쳐지고 연극적 놀이의 형태로 目連戱가 행해졌던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우란분재 때 설행되던 목련희는 목련이 지옥을 순례하고 지옥의 비참함에서 어머니를 구한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구성되는 것인데, 목련희는 연극적 놀이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주술적 분위기와 공포심을 자극하는 무대 장치와 행위로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 당시 고려의 우란분재 때에도 목련희가 설행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러한 축제적 齋會를 즐겼던 일반민들은 감각적으로 묘사되는 지옥의 모습에서 보다 큰 자극을 받게 되었을 것이다. 12세기에 가면 궁중에서도 우란분재가 베풀어지고 『목련경』 강경이 행해졌다고 한다.[76]

---

72) 『高麗史』卷第2 世家第2. 『高麗史』卷第93 列傳第6 崔承老.

73) 고려 文宗 10년(1056)에 문종은 불교 교단과 승려의 세속화를 경고하고 계율을 受持할 것을 강조하는 조서를 내렸는데, 그 조서 중 "通商買賣, 結客酣嬉, 喧雜花院, 穢臭蘭盆(장사치들과 결탁하여 물건을 매매하고 잡인들과 어울려서 술주정을 하며 놀음청에 뒤섞이어 우란분을 모독하고 있다. 북한 사회과학원 고전연구실 번역)"라는 표현에서 당시 불가의 풍속에 놀이와 함께 행해지는 우란분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高麗史』卷第7 世家第7 文宗 10年 참조.

74) 小川貫弌, 앞의 논문, 312~313면.

75) 岩本裕, 앞의 논문과 김영지, 앞의 논문 참조.

또 숙종 때에는 서경 흥복사에 시왕당을 완성하고[77] 인종이 병이 나자 시왕사에서 쾌차를 빌었다는 기록이 있어[78] 12세기 이후 궁궐에서 불교 명부신앙의 핵심을 이루는 시왕신앙이 행해지고 있던 것을 알 수 있다. 시왕신앙의 유포와 더불어 사후 100일이 되는 날에 薦度齋를 행하는 상장례도 등장하였다.[79] 죽은 지 백일이 되어서 自薦했다는 것은 『佛說預修十王生七經』에 의한 것이다. 당말에 중국에서 성립된 이 경전은 고려 초기에는 이미 들어와 있었을 것인데, 이에 의하면 사후 매 7일마다 49일까지 7번과 100일, 1年忌, 3年忌를 합해 10번의 齋를 열어 10명의 冥王에게 禮懺하고 追善供養하도록 하고 있다.[80]

나말여초의 사회상황은 지옥을 새롭게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하여 고려시대에는 왕실 뿐 아니라 민간에까지 다양한 형태로 지옥관념이 전개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4. 맺음말

지옥관념이란 사후에 인간이 생전의 행위에 의해 심판을 받고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벌을 받는다는 사고방식이다. 불교의 지옥사상은 인과응보와 윤회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발전하였는데, 초기경전에서부터 많은 경전에 지옥설이 소개되었고, 동아시아에 불교가 전래되면서 이들 경전을 통해 지옥사상도 유포되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지옥관념을 접하게 되는 것은 어려운 경전이 아니라 이야기나 畵像, 의례와 같은 매개를 통해서였고, 그럼으로써 불교의 지옥관념은 일반인들의 생활원리에 깊이 침투할 수 있었다.

통일신라시대 불교가 수용되면서 지옥관념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을 텐데, 중국의 명계설화를 신라의 시공간으로 변화시킨 지옥설화의 존재 등으로 보아 그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중국이나 일본의 비슷한 시기의 지옥 관련 자료와 비교해 보았을 때, 통일신라시대의 지옥 관념을 전하는 자료에서는 지옥벌을 받는 惡因으로 自因이 아니라 부모의 죄로 대신 과보를 받는다는 설정이 나온다든지, 살생을 지옥벌의 중요한 악인으로 설정하는 이야기가 없다든지 하는 특이한

76) 『高麗史』卷第11 世家第11 睿宗 元年 七月 癸卯, 『高麗史』卷第13 世家第13 睿宗 4年 七月 戊午.
77) 『高麗史』卷第11 世家第11 肅宗 7年 九月 丁酉.
78) 『高麗史』卷第16 世家第 16 仁宗 24年 甲午.
79) 「鄭知源 墓誌銘」(1149). 金龍善 編著, 1993 『高麗墓誌銘集成』, 翰林大學校 아시아文化硏究所, 104면, "君嬰年六十, 以勞傷之病, 卒于南山中房寺. 四月初三日, 慥等護其柩出, 葬于京城西山之麓, 卜吉日收拾靈骨, 以安別處, 至百日自薦, 禮. □將以安骨於宅兆."
80) 시왕신앙과 칠칠재는 고려 중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전개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에서 다루고자 한다. 시왕신앙에 대해서는 김정희, 앞의 책을, 천도재에 대해서는 李應周, 1999 「麗末鮮初 佛敎儀禮의 축소와 薦度齋의 역할」,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참조.

점을 살펴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옥 관련 자료가 거의 없다는 것이 가장 문제이다. 일반인이 가졌던 전통적 저승에 대한 관념의 영향이나 상층 지배층의 지옥행에 대한 무관심과 같은 요인이 통일신라시대 지옥관념의 적극적 유포에 걸림돌이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다가 나말여초 혼란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현실에 대비시키면서 지옥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상상을 하게 되었던 것 같다. 그럼으로써 지옥의 심판과 징벌에 대한 두려움도 구체적으로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지방호족 출신의 고려 태조 왕건이 지옥의 징벌을 두려워하였던 것은 신라시대 특권층이 보여주었던 태도와는 다른 것이었다. 또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사람들의 생활 전반에 작용을 하게 되면서 지옥관념 역시 전시대에 비해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전개되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역시 고려초기까지 지옥 관련 자료는 당대의 주변 사회와 비교했을 때 그리 많은 편이 아니다.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 아직은 확실히 무어라 말할 수는 없지만, 단순히 자료의 遺傳에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면, 이 시기까지 지옥 관련 자료의 부족은 전통적 저승관념으로 인해 지옥관념이 빨리 받아들여지지 못했을 가능성 뿐 아니라, 지옥관념의 본질인 심판과 징벌에 대한 사고의 태도라든지 반성과 참회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볼 문제이다. 앞으로 밝혀나가야 할 문제로 제기해둔다.

주제어 : 지옥, 지옥관념, 인과응보, 지옥설화, 선율환생설화(善律還生說話)

투고일(2008. 6. 25), **심사시작일**(2008. 6. 26), **심사종료일**(2008. 7. 10)

<Abstract>

The Development of The Idea of Hell from United Silla to Late Silla and Early Goryeo

Na Hee-La *

The idea of 'Hell' is a way of thinking that man will be judged by what he has done during his life time, and be punished for his sin. It has its origin in man's desire to recover the incompleteness of this world in afterlife, but it has political and social character as it had developed. The idea of 'Hell' has positive effect to help the individual to have ethical self-consciousness by self-reflection.

The thought of 'hell' in Buddhism has developed on the base of retribution and transmigrationism, The idea of 'Hell' was introduced in the early Sutras, and was spread through these Sutras as Buddhism was induced in East Asia. But the commons could access the idea of 'Hell' by the folk lore, folk painting, courtesy, not by the Sutras which the commons could not understand. So The idea of 'Hell' of Buddhism had filtered into the life of the ordinary people.

Buddhism was accepted by the public in the period of Silla Dynasty, The idea of 'Hell' had affected the ordinary people, We can figure out the situation by the existence of story of hell which had transformed Chinese story of hell. But It seems to have a limitation in spread of the idea of 'Hell', because of Korean traditional idea of the next world and ignorance of gentility. Then, During the political chaos between Silla and Goryeo, people had compared the reality with the hell, this made the people have concrete idea of hell, and in Koryo Buddhism had strong effect to the daily life. As a result, The idea of 'Hell' had influenced on people's way of thinking and life style.

Key Words : hell(地獄), the idea of hell(地獄觀念), retributive justice(因果應報), a story of hell(地獄說話), the story of 'Seonyulwhansang'(善律還生說話)

* 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General Education, Jinju National University